

2024
Vol.02

TALK²

[특투]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SG Magazine

CSG

Contents

New Year's Message

갑진년 새해, 회장님 신년사

역대 신년사 06
2006 ~ 2024
2024 신년사 08
動 / MOVE / 움직여라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부 [TALK ² + Interview] 11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대상 - QD 전관운 팀장
창신의 한 문장 14
듣고 싶은 한 문장
CEO 두줄 노트 16
표준화

Manufac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1
팀 소개 - Kids
CSG News Pick (#창_뉴_픽) 26
#조직문화 #Development
Advertisement 31
독서 동호회 / 열두계단
Lean 단상 32
32호 좌우명
Trend Catcher 34
News Clipping 68호
Challenge to Move 36
'티나는 칭찬' 챌린지

2006

日日新新
又日新

2007

有求皆遂
無願不從

2008

隨處作主
立處皆真

2009

即時現
更無時

New Year's Message

2024 갑진년, 회장님 신년사

2017

鷹命

2016

一以貫之

2015

大事必細
各就各人

2014

有難同
有福同

2018

越界邊方

2019

無知之知
有志竟成

2020

創格為新

2021

함께

New Year's Message

2006 ~ 2024

2006 日日新新 又日新	2007 有求皆遂 無願不從	2008 隨處作主 立處皆真	2009 即時現今 更無時節	2010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覺 百覺不如一行
2011 萬事不如 準備 튼튼	2012 事事入魂 立志卓山	2013 行同餘他 不可越群	2014 有難同當 有福同享	2015 大事必細 各就各人
2016 一以貫之	2017 鷹命	2018 越界邊方	2019 無知之知 有志竟成	2020 創格爲新
2021 함께	2022 持恒卓越	2023 養晦	2024 動	

2024 신년사

動

MOVE 움직여라

지난 한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고 했었고, 또 걸러왔습니다.
CSG 2028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전략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먼동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임 때입니다.
비전의 전략을 실천으로 옮깁시다.
지금 서있는 이곳에서 저 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로 MOVE 합시다.

갑진년 원단
정환일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부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제6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대상 (본부 Competition)

온도 및 습도와 불량률의 상관관계 분석과
QD Phylon 개선 활동 전개

전관운 QD Phylon 팀장



“데이터 분석은 끈기와 협업에서 시작”

지난 2023년 12월 11일, 약수루에서 제6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본사를 비롯한 해외법인 총 10개 팀이 각 본부를 대표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온도 및 습도와 불량률의 상관관계 분석과 QD Phylon 개선 활동 전개’를 주제로 한 **전관운 QD Phylon 팀장**의 프로젝트가 **Competition** 부문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전관운 팀장을 만나 대상 수상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감을 들어봤다.

Q 수상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D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혼자였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애써준 Phylon팀, 데이터 분석을 지원한 이돈영 상무와 손병일 과장, 우리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 준 심사위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Q 주변 반응은 어땠나

주변 동료와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권순제 GM님께서도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팀원 483명 모두에게 양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동료들에게는 침구류를 선물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고, 이번 대상 수상으로 **Phylon팀이 더 끈끈해졌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졌다.**



Q '온도 및 습도와 불량률의 상관관계 분석과 QD Phylon 개선 활동 전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미드솔 불량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량률을 낮추었다. 또한 기상 예보를 통해서는 불량률을 예측하여 대응 방안도 사전에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Q 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단연 **로우데이터(Raw Data) 확보**다.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량의 일관성 있는 로우데이터 확보가 필수였다. 높은 수준의 로우데이터 수집을 위해 **Phylon팀이 3교대로 10개월간 정시마다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 불량률을 체크하고 기록**했다. 정말 쉽지 않은 대장정의 프로젝트였다. 서로 간의 배려와 끈기 덕분에 QD 작업장의 고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양질의 데이터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다.

Q 다음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조언한다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소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일상 속 당연한 것들이 개선과 분석 포인트가 되더라. 원래도 **팀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더 노력하게 됐다.**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참여는 자료 수집부터 분석과 발표까지 혼자 해내기는 힘든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기부여하며 끈기와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누구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창신인이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창신의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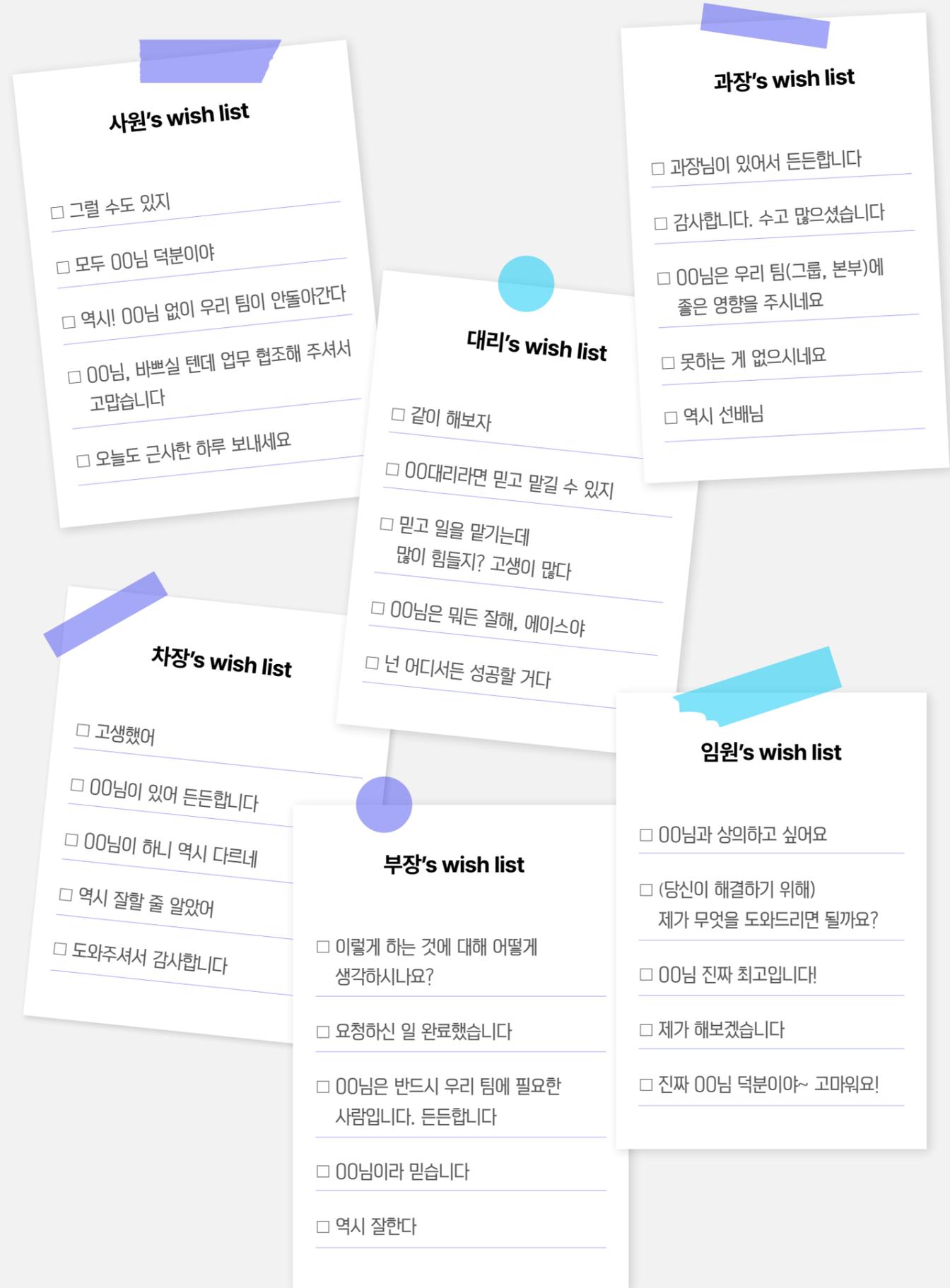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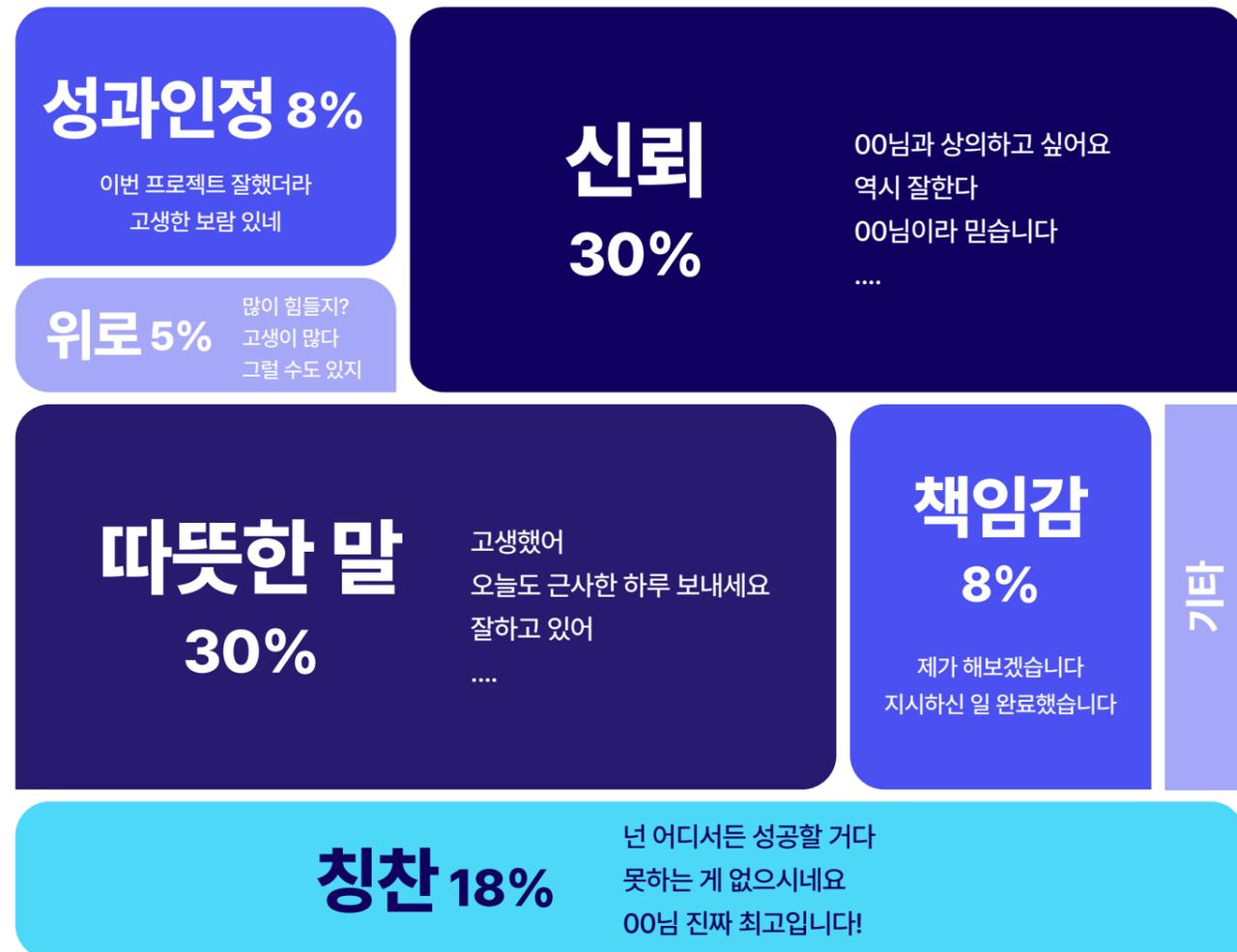
듣고 싶은 한 문장

전 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창신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한 문장으로 묻고 나눈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존중하는 칭찬 한마디'는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창신 임직원들의 '듣고 싶은 한 문장'을 알아보고, 상대방에게 먼저 듣고 싶은 말을 건네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원부터 임원까지 임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동료 및 상사에게 '듣고 싶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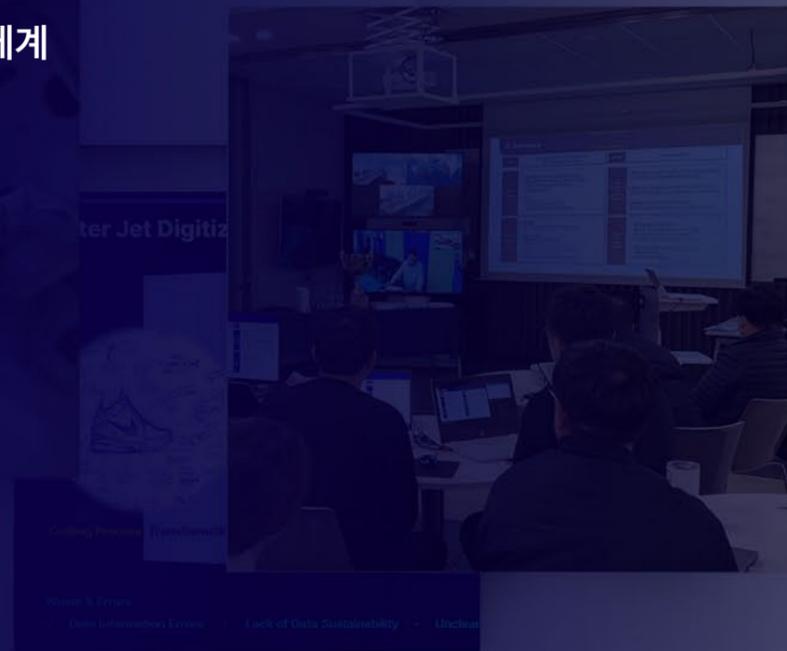
**“표준화는 원하는 형태로 세상을 만드는 작업이다.
디지털화를 위한 선결조건이자, 초격차 창신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혁신도 표준화를 통해 실현된다.”**

세종대왕은 1443년 우리 말소리를 쉽게 담을 수 있는 28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창제 목적은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문맹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백성을 위함이다. 한글의 등장은 지식의 확산과 원활한 소통의 토대가 되었다. 현재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문자표준 유니코드(Unicode)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5년 통일된 도량형인 “**미터법(Metric system)**”을 제정,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으로 전파시켰다. 표준도량형 없이는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어렵고, 세금징수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복은 순간이지만 미터법은 영원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 약 95%가 미터법을 표준단위계로 사용한다.

중국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역시 통치기간 동안 가장 중시한 것은 주 이동수단인 수레의 바퀴 폭을 통일하고, 같은 문자를 쓰게 한 “**거동궤(車同軌), 서동문(書同文)**” 정책이었다. 통일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첫 번째로 강조한 조치가 바로 표준화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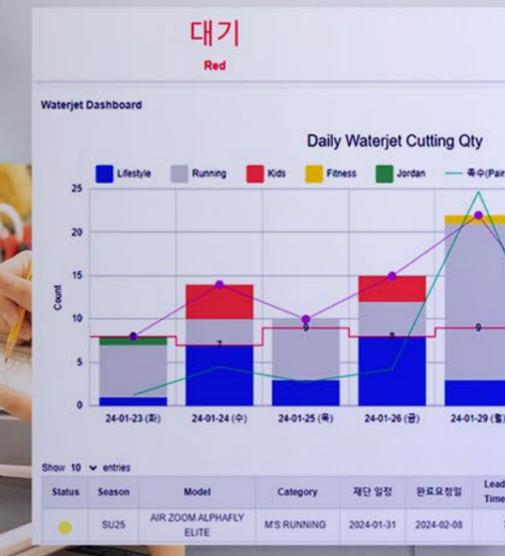
초격차를 향한 창신의 첫걸음도 제조, 관리 및 운영체제 **표준화를 통한 성과의 상향평준화 창출**이다.



STANDARD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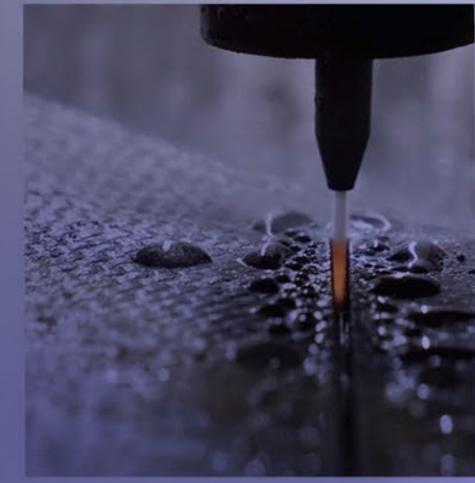
DIGITALIZATION



업의 본질 | Business Definition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단순 신발 제조를 넘어
 제조와 관련된
 모든 제조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



AUTOMATION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Kids
Never gets old!!

아이들의 시선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시도를 하며 틀에 갇히지 않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Right product for kids

창신의 기술력을 가장 먼저 전하는 Kids팀을 소개합니다

어린 고객을 위한 신발을 개발하는 Kids팀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 성장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Kids팀 박혜은 과장 인터뷰

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키즈 신발 100컬레 이상을 수집하고 분석한 개발 전문가 박혜은 과장을 만나 키즈 제품과 Kids팀의 매력을 알아봤다.

Q 어떤 신발을 만드나

영유아부터 15세 전후까지의 키즈 전용 신발을 개발하고 있다.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TD(Toddler),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PS(Pre-School),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한 GS(Grade School)까지 크게 3파트로 나뉜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처음 접하는 아이 신발을 만들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ike Air Zoom Arcadia

Q 초장기 멤버로서, Kids팀 자랑 좀 해달라

창신에서 키즈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Kids팀이 독립적으로 꾸려진 것은 2018년부터다.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도 유아동 관련 패션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는데, Kids팀 또한 회사 전체 오더의 약 13%에서 현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팀 이름은 키즈이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작지 않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어덜트 모델의 키즈 버전을 만드는 경우 어덜트 모델의 개발 과정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개발하는지 볼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집약적으로 쌓을 수 있다. 또 타 팀과의 접점이 적지 않아 성장의 기회가 많은, 한마디로 Kids팀은 성장의 밀도가 다르다.

Q 기억에 남는 모델

시리즈 개발까지 이어진 '아카디아'이다. 정식 명칭은 Nike Air Zoom Arcadia. 목가적 이상향이라는 'Arcadia'의 뜻이 Kids팀과 닮았다는 생각에 더 기억에 남는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매 라운드마다 웨어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개발 단계부터 웨어테스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마음을 즐겼다.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마모되거나 찢어지고, 사이즈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달라 계속 테스트를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팀이 함께 노력해 다각도에서 웨어테스트를 진행했고, 좋은 신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진심이 닿았는지 출시 이후 반응도 뜨거웠다. 사랑을 많이 받은 모델로, 시리즈 2도 출시됐고, 아카디아 그룹까지 생겨 특히 기억에 남는다.

Q 앞으로의 계획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신발을 대하는 태도에 진정성이 더해졌다. 이전에도 키즈 신발 100컬레를 소장할 만큼 신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진심이었지만, 육아를 통해 아이의 시선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내 아이가 신을 신발'이라는 책임감이 생겼다. Kids팀 미션인 'Right product for kids'를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틀에 갇히지 않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는, 'Never gets old'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후배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

Swoosh 1

아이들 스스로 첫걸음을 떼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신발로
미국족부의학회(American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의 승인을
받은 나이키 최초의 키즈 신발

Kids팀은 2년여의 개발을 통해
창신 최초의 키즈 이노베이션 제품인
'Swoosh 1'을 만들어 냈다



Project Team I TD 정다운 과장, PE 김동인 대리, TE 김용현 과장, CE 이지나 과장

Q Swoosh 1은 어떤 신발인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의 첫 번째 스우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이들 스스로 첫걸음을 떼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신발이라고 할 수 있다.

Q 개발 과정이 길었다고 들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기존 키즈에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신발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처음'이라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힘들었다. 프로세스를 세팅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가는 초반에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맨발일 때의 느낌을 주기 위해 최대한 얇고 소프트한 소재로 아웃솔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기 발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위해 키즈 최초 Full 3D Knit Upper를 사용한 제품이 되었다. 특히 처음부터 오랫동안 공들여 테스트했던 Knit Upper로 아웃솔을 대체 구현하는 콘셉트가 개발 과정에서 별도로 아웃솔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끝나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돌이켜보니 이때의 결정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국족부의학회 승인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 큰 기점이 된 것 같다.



Kids팀 정다운 과장 인터뷰

Swoosh 1 개발 주역 중 한 명인 Kids팀 정다운 과장을 만나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누군가의 첫 번째 신발을 만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Q Swoosh 1은 그동안의 경험이 집대성된 제품이라고

Air Zoom Tempo FK 모델의 GS(Grade School)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다. 성인 모델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한 GS 버전으로 만든 것이기에 주도적으로 니트를 개발하진 않았지만, 이때 니트 제품을 접했던 경험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험이 큰 자산이 되는 것 같다.

Q 웨어테스트 때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변 동료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내 동료의 아이들이 직접 신고 테스트한다고 하니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한 동료분은 회사 보고서처럼 전문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인상 깊었다. Swoosh 1은 아이의 올바른 걸음걸이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발 성장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한 모델이다 보니 작은 디테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제품보다도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Q 론칭 후 시장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다. 예상했나

2012년 입사 이후 꽤 많은 제품을 개발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다. 2021년 11월에 시작해 2023년 5월쯤 개발이 완료되었으니 일반적인 모델보다는 개발 기간이 긴 편이었다. 개발 후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2023년 11월 론칭 후 북미 및 중국 등지에서 매진을 기록하는 등 시장 반응이 좋다는 연락을 많이 받다 보니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지금은 보람을 느낀다.



Q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 신입 때 멘토였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다잡게 된다. TD 혼자서는 일할 수 없기에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엔지니어 등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여, 팀의 핵심이자 창신의 핵심 인재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 후배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2023 OSS(One Success Story) 어워즈에서 수상한 창신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OSS 담당자 한마디
김수연 대리 HQ HRD

OSS의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2024년에는 모든 창신인들이 의미 있는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Way of Working)'과 연관된 OSS를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한다.

#조직문화

2023 OSS 어워즈

작년 12월 진행된 OSS 어워즈를 통해 임직원 43명의 보석 같은 성공 스토리를 나눌 수 있었다. 1·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12명의 수상자들 중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를 만나 소감을 물었다.

대상



골때리는 이예슬

이예슬 대리 HQ Security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구절처럼, 나에게 OSS 참가와 축구는 내성적이고 왜소한 체구의 나를 깨고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전이었다.

2년 동안 꾸준히 축구 레슨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은 개인 레슨을 받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남자 풋살팀에도 참여했다. 노력의 성장통을 겪으며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주변의 인정을 넘어 내 가치를 높여 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축구라는 작은 한 걸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대상이라는 성공을 이루게 되어 영광이다. 이 과정에서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보내준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수상

런런이의
마라톤 도전기

하정훈 대리 HQ IC

23년 목표인 풀마라톤 참가를 위해 최적화된 몸무게를 만들고, 강도 높은 조깅 마일리지 채우며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 준비 과정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바쁜 워킹맘의
다이어트 성공기

안혜진 차장 HQ PMP

건강한 몸과 운동 습관화를 목표로 꾸준히 운동한 결과, 1년 동안 2번의 바디프로필을 촬영할 수 있었다. 워킹맘으로서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목표를 위해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를 찾는 여정
16kg 감량 성공 스토리

이용찬 대리 HQ HRBP

건강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조금씩 단계를 높이며 습관으로 만들었다.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노력한 결과 전보다 더 건강한 몸과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인이라면 알아야 할
2024년 Big Volume Top 5 및
Key Model을 소개합니다

#Development

2024 주목할 모델 ¹⁾

2024 Key Model

P-6000



#Lifestyle

24년 오더 성장 및 강세가 기대되는 모델

이른바 젠지(Gen-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레트로한 감성의 오버레이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 뛰어난 착화감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 오더 증가 등 앞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J 1 Low & Mid



#Jordan

조던 브랜드의 대표적인 Franchise 모델

AJ1은 시즌 2백만 족 이상 오더를 지속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Franchise 모델이다. 창신은 SP24부터 AJ1 Men's 제품의 개발 센터 역할을 맡아, AJ1 기반의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1) 2024년 1월 기준 데이터
2) 2024년 시즌 (SU24~SP25)

2024 Big Volume Top 5 ²⁾





Notice

광고 페이지

디지털 사내보 TALK²는 창신인들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게재 가능합니다.

- 문의
Communications팀

TALK²

독서 동호회 열두계단

'열두'는 독서 목표 권수를, '계단'은 개인의 지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함께 읽으며 열두 계단을 성장해 나갈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독서를 좋아하는 창신인 누구나 가능

활동 내용

매월 읽고 싶은 책을 투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다음달 모임까지 선정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눕니다.

활동 시간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5시

활동 장소

사내 SDA Dream 미팅룸

신청 방법

운영진에 직접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회장 고동기 010 6767 9739

총무 황승민 010 2425 0113

추천 도서 Best 3

창신 독서 동호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읽었던 도서 중, 추천 도서 'Best 3'를 소개합니다.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모순
양귀자



어머니를 돌보라
릴 릴먼

Lean 단상 32호

좌우명 座右銘

글 | JJ Lean 박성영 부장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고 새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챙겨보며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각오가 새해의 다짐이라면, 각자의 인생을 항상 새롭게 맞이하려는 각오를 '좌우명(座右銘)'이라 말한다.

좌우명이란 '자리의 오른쪽에 새긴 글귀'라는 뜻으로, 항상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과 행동의 길잡이로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언이나 격언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래 이 좌우명은 문장이 아니라 술독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춘추오패의 한 사람으로 꼽히던 제나라 환공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묘당을 세우고 그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진열해 두었는데, 그중에 이상한 술독이 하나 있었다.

텅 비어 있을 때는 기울어져 있다가, 술을 반쯤 담으면 바로 서고, 또 가득 채우면 다시 엎어지는

이상한 술독이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의 묘당을 찾았다가 그 이상한 술독을 보고, "아저 것이 그 옛날 환공이 의자 오른쪽에 두고 가독 차는 것을 경계했다던 바로 그 술독이로구나!"라며, "공부도 이와 같아 다 배웠다고 교만을 부리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는 법이니라." 하고는 똑같이 술독을 만들어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스스로를 가다듬었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한 평생을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공과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상실의 아픔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나태함, 분노, 두려움으로 갈등이 생기고 때론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오욕(五欲)과 칠정(七情)이 뒤얽힌 세상살이 속에서 좌우명은 내 인생이 좌절과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자신만의 지침인 것이다.

청각장애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이 역사 속의 악성이 되기까지 그에겐 '포부를 지닌 재능과 근면 앞에 전진 불가라는 울타리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좌우명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도우라'는 자신만의 굳은 다짐이 있었다.

어린 시절 축구 선수로서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재능도 없고 대학과 K리그로부터 문전 박대를 당했던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1호 프리미어리거가 되었던 것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지금 보이는 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한 그만의 좌우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좌우명이라고 하면 평생을 지켜야 할 약속인 듯 어렵게 생각하여 쉽게 결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집(宀) 안에 앉을 좌(坐)를 받쳐 놓은 글자이니, 자리와 지위에 따라 또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달라짐을 뜻한다. 평생을 고집해야 하는 문구가 아닌 것이다.

혹자는 바르게 살면 그만이지 무슨 좌우명이냐고도 한다. 하지만, 마음의 각오는 분명 삶의 자세를 확연하게 갈라 놓는다. 누구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힘ियो, 나 자신을 격려하는 칭찬이며, 나 자신을 질책하는 꾸지람이 바로 좌우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Reignite Lean이라는 이름으로,

'The AceMaker' 비전 달성을 위해

가장 기본인 Lean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ignite Lean을 주제로 한 회장님 교육에는

'나는 혁신 앞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페이지가 있다. 가깝게 두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좌우명이라면, 세상천지 어디에 이만한

좌우명이 따로 있을까!

작년의 아쉬움과 후회는 모두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한 202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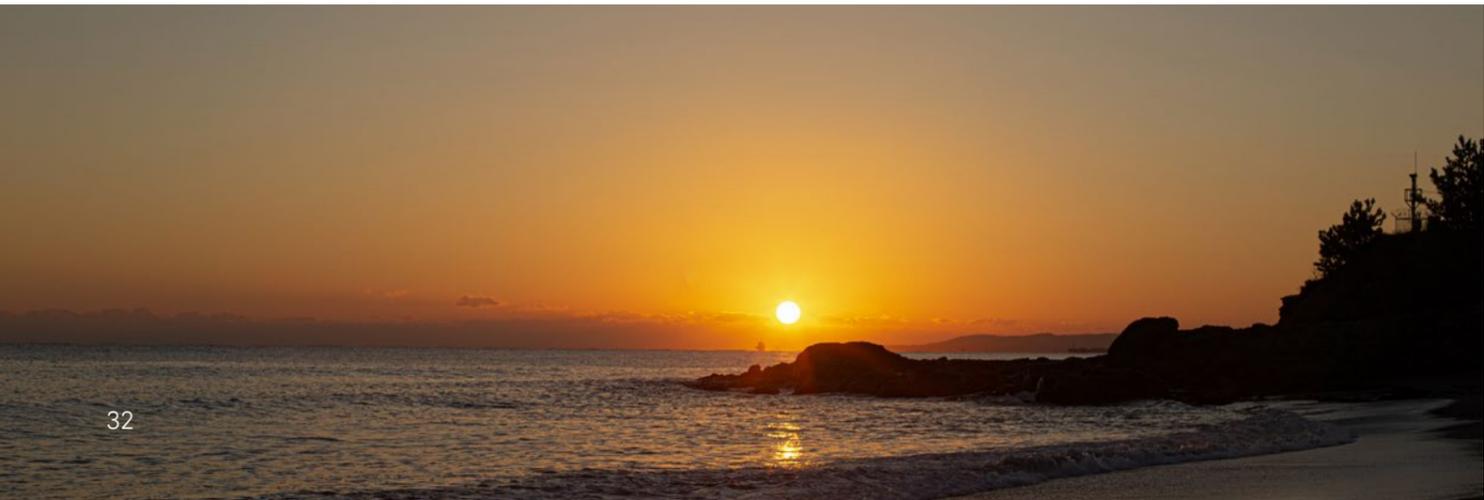
<MOVE 動 움직여라>는 회장님 신년사처럼

새로운 도약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면, 올해는 비록 작더라도 뚜렷한

나만의 좌우명으로 한 번 맞이해볼 일이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68]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January 2024

작성 | 경영관리팀

NIKE

HSBC, 24년 상반기 NIKE 수요 부진 예상

- 24년 상반기 스포츠웨어 부문이 수요 부진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하반기쯤 스포츠 경기 및 재고 감소 등의 호재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NIKE의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아 단기 내 주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위의 전망에 따라 NIKE 목표 주가를 \$120에서 \$115로 하향 조정

AP통신

NIKE, 네이버와 협업으로 국내 최초 생성형 AI 광고 서비스 'CLOVA for AD' 오픈

- 'CLOVA for AD'는 네이버의 AI를 기반으로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 제공
- 연쇄적인 질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품 추천, 구매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짐
-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새로운 광고 유형으로,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

EBN 산업경제

경쟁사 / 산업 탐구 / 산업

Pou Chen 그룹, 텃(Tet, 베트남 구정) 보너스 지급 발표

- 베트남 8개 공장의 9만 4천여 명의 직원에게 약 \$60M 보너스를 지급 1인당 \$650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 그룹 경영진은 2023년 세계 경기 침체가 회사 생산과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직원들을 위한 관리 체제를 보장하고자 보너스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힘

굿모닝베트남

ADIDAS, 일반 대리점주들과 마지막 수주회 진행

- ADIDAS KOREA가 24FW 제품에 대한 수주회를 마쳤으며, 이는 일반 대리점주들과의 마지막 수주회임
- 25SS 제품 수주회부터 ADIDAS KOREA가 선정한 19개의 '퓨처 파트너'와만 진행할 예정
- '퓨처 파트너' 정책은 NIKE 대비 낮은 브랜드력과 메가급 파트너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리라는 의견도 존재

어패럴뉴스

PUMA, 24년 어려운 상황 속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박차

- 경기 침체 및 소비 둔화로 23년 4분기 실적 감소, 24년에도 어려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PUMA CEO Arne Freundt "외부 요인은 바꿀 수 없으니,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출시에 집중할 것"
- 23년 영업이익은 €622M이었으며, 24년에는 €622M~€700M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음

Footwear News

Challenge to Move

2월호 챌린지

'티나는 칭찬' 챌린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은 누구에게나 기쁨과 힘을 줍니다.
특히 공개적인 칭찬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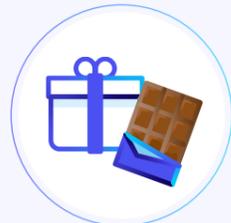
창신인들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나아가는 힘을 전할 수 있도록
'티나는 칭찬'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칭찬하고 싶은 사람과 메시지를 적어 응모하면
총 4명을 선정해 칭찬 대상자에게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해보세요.
셀프 칭찬도 환영합니다.



칭찬하고 싶은 대상과
메시지를 적어 응모해 주세요.
(~2/21 까지)



칭찬 대상자 4명에게
선물을 전달 드립니다.
(3/14 예정)



선정된 칭찬 사연을
다음 사보에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익명으로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칭찬 사연은 다음 사보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Event 참여 방법

아래 Google Survey 링크에 접속하셔서 참여 바랍니다.
<https://forms.gle/qwKqpN3MZk2X4hSb6>

창간호 챌린지 결과

창신인들이 뽑은 2023년 가장 기억에 남은 뉴스와
2024년 기대되는 희망 뉴스

23년 창신의
No.1 뉴스는
무엇인가요?

- 1 Vision 2028 The AceMaker 선언
- 2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 3 Alphafly 3 마라톤 세계신기록 달성

기타 의견

일하는 방식(Way of Working) 워크숍 진행, CSG 리브랜딩, 모랄구호 및 굿모닝 인사 재시행, 코로나 아웃 등

24년 창신에
희망하는 뉴스는
무엇인가요?

- 1 오더량 증가
- 2 개발 모델 증가
- 3 디지털화 확대 적용

기타 의견

부산 매출 1위 달성, 해외법인 연수 재개, 연봉 상승 등



창간호 챌린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The AceMaker 굿즈를 드립니다.

당첨자는 2월 14일까지 커뮤니케이션팀에 방문하여 선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박*지 / 1190

윤*빈 / 3515

문*준 / 1197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